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어머니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 및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을 중심으로\*

Influence of Attachment with Mother on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Concept :  
Comparison of Korean-Chinese with Korean Adolescents\*

이사라(Sarah Lee)<sup>1)</sup>

박혜원(Hyewon Park Choi)<sup>2)</sup>

**ABSTRACT**

Participants in this study of adolescents residing in differing ecological environments were 200 Korean-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of Yanji, China, and 200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f Gyeongbuk Province, ROK. Instruments were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Armsden & Greenberg, 1987), Social Competence Inventory(Doh & Falbo, 1999), and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Harter, 1988). For Korean-Chinese adolescents, attachment with mothers directly influenced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indirect influence was mediated by self-concept. For Korean adolescents, attachment influenced peer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only indirectly by self-concepts. These findings contrast with those of Choi & Lee(2005) suggesting that the socio-emotional outcome of attachment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socio-cultural context as well as developmental stage.

**Key Words** : 어머니와의 애착(maternal attachment),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자아개념(self-concept).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up>1)</sup>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sup>2)</sup>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 Choi,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Ulsan 680-749, Korea E-mail : hyewonc@mail.ulsan.ac.kr

## I. 서론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주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의 초기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한 개인의 일생에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애착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된 양육자-유아의 관계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영아기를 지난 시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론의 부족으로 애착 연구에 제한점을 초래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아기를 넘어 유아, 아동 및 성인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의 발달과 타당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이시은 · 이재창, 2004). Bowlby(1969)는 부모와의 애착유형의 형성은 아주 어린 시기에 완성되고, 이때 일단 만들어진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한 개인의 인지과 지각을 한 곳에 모으도록 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 환경을 선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내적 작동모델이란 각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는 내적 표상으로서, 생후 1년 동안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그 기초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을 바탕으로 개인은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Bowlby, 1973). Bowlby는 유아기동안 형성된 애착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내적 작동 모델이 청년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 내적 작동모델은 청소년기의 경험을 통해 발전하기도 하고 유연성 있게 변화할 수 있음도 고려되면서 청소년기 애착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Waters & Cumming, 2000).

애착과 관련된 청소년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둘째, 영아기나 아동기와 달리 부모에 대한 외현적인 애착행동은 감소하나, 그동안 형성되어온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율성 획득과 관련성이 높은 시기이다(이경숙 · 엄혜련 · 정영운, 2004).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며, 이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여전히 부모나 기타 애착대상은 안전기반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애착체계로 회귀하여 부모 및 애착대상에게 도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구한다(Ainsworth, 1989).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걸친 종단적 연구에서(Papini & Roggman, 1992) 애착관계의 지지적 기능은 발달의 과도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외, 2004).

최근 청소년 애착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견해 차이와 관련된 청소년-부모 상호작용에서의 관계성 유지와 자율성 및 자아개념 획득의 성공적인 균형은 청소년기의 애착 안정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Allen, Hauser, & Borman, 1996; Allen, Moore, Kuperminc, & Bell, 1997; Becker-Stroll & Fremmer-Bombik, 1997).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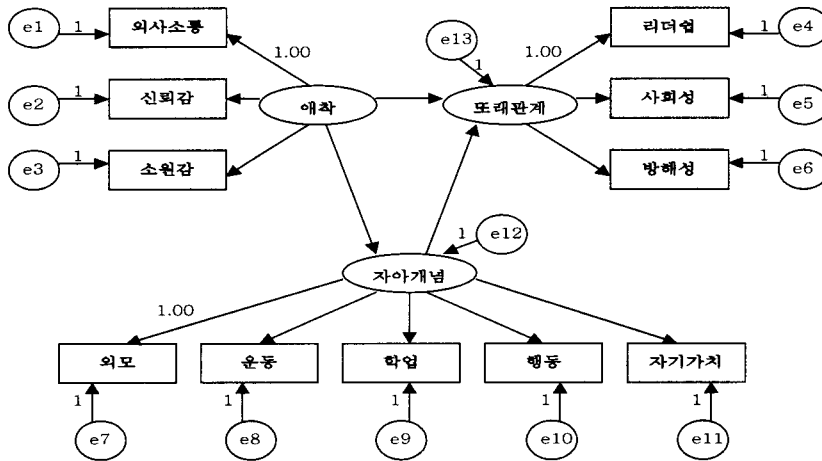
계 양상,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청소년의 반응 및 행동에는 내적 작동 모델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자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애착 연구가 주로 영·유아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소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청소년기 애착연구를 살펴보면, 정현희와 오미경(1993)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애착이 잘 된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Greenberg 등(198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IPPA를 측정한 결과, 부모에 대한 감정의 특성은 청소년들의 높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에 대한 감정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안정되고 신뢰로운 애착관계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Kroger, 1985; Kroger & Haslett, 1988)이 있다. 최근 Cooper 등(1998)은 13세에서 19세에 이르는 198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증후, 자아개념,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는데, 안정애착아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부정적인 감정에 적응적으로 대처했고 자기 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안-양가적인 청소년들은 가장 낮은 자아개념을 보였고, 사회적 적응능력에서는 안정적인 애착집단보다는 낮고 회피적 청소년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회피적 유형의 청소년집단은 불안-양가적인 청소년들보다는 높고, 안정적인 청소년들보다는 낮은 자아개념을 보였으며, 사회적 적응능력에서는 가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의 적응패턴은 다르게 나타

났으며,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신뢰로운 애착관계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인 연변지역은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독특한 지역으로 한국 이외의 단일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서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타 국가 내에서 민족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으로서 보기 드문 매우 거대한 거주지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국의 개방화라는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문제와 민족문화의 계승이나 단절이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한족 주류문화인 중국과 한국인이 주류인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주변인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야할 방향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맞이하여 이주와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를 나타내면서 조선족 차치주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요구되는 시대적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중국 조선족의 사회 정서적 발달 환경을 이해하고 조선족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기에 관한 것이며, 특히, 조선족 청소년의 애착 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청소년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이경숙 외, 2000), 조선족 사회라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의 부족 때문이다. 애착측정을 위한 실험실 방법은 청소년기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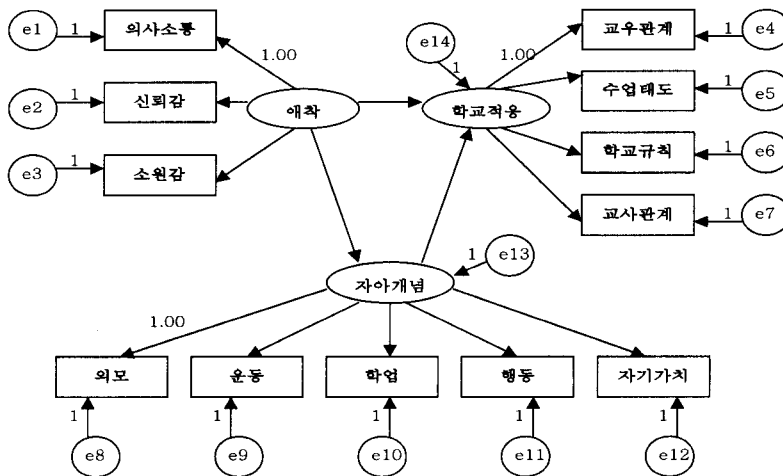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

도가 입증된 자기보고식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행동적 차원과 정서·인지적 차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rmick & Kennedy,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최대의 자치구인 연변지역의 중학교 학생 및 한국의 경북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개념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

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2-1.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2-2.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2〉 연구모형 II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연변 조선족 중학교 3학년 학생 200명과 한국 경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중국 연변 중학교에서는 169명이 회수되어 84.0%의 회수율을 보였고, 한국 경북지역 중학교에서는 197명이 회수되어 98.5%의 회수율을 보였다. 중국 연변 중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78명(46.4%), 여학생 83명(49.4%),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학생 7명(4.2%)으로 나타났고, 한국 중학교에서는 남학생 59명(29.9%), 여학생 137명(69.5%), 성별을 기재하지 않은 학생 1명(0.5%)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위해 측정한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각 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 2. 측정도구

#### 1) 애착

애착의 측정을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대상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원본을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래 IPPA는 Likert식 5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4점 척도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중학생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IPPA는 세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부모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표 1〉 애착, 또래관계,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각 요인별 점수(평균 및 표준편차)

	중국 조선족		한 국	
	N	M(SD)	N	M(SD)
<u>애착</u>				
의사소통	165	3.04(.55)	195	2.76(.67)
신뢰감	166	3.28(.50)	194	2.98(.53)
소원감	165	3.15(.65)	194	3.13(.50)
<u>또래관계</u>				
리더쉽	162	2.49(.49)	193	2.57(.46)
사회성	165	3.24(.45)	193	3.27(.46)
방해성	165	3.01(.45)	194	2.92(.54)
<u>자아개념</u>				
외모	164	3.28(.94)	195	2.78(1.13)
운동	165	2.98(.86)	194	2.86(1.05)
학업	165	3.42(.77)	194	2.82(.82)
행동	160	3.42(.44)	194	3.35(.63)
자기가치	167	3.29(.87)	191	3.06(.83)
<u>학교적응</u>				
수업태도	163	2.78(.56)	192	2.39(.54)
친구관계	160	2.99(.51)	193	2.99(.49)
학교규칙	166	2.96(.50)	192	2.51(.52)
교사관계	165	2.81(.56)	193	2.61(.49)

고려하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10개의 문항이다. 둘째는 신뢰감(trust)문항으로 걱정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소원감(alienation)요인은 집에서 나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8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개로 구성된 애착척도를 요인분석하여 3개 요인에 포함된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척도의 하

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alpha$ )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83, 신뢰감은 .89, 그리고 소원감은 .73으로 나타났다.

## 2)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능력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후 3개의 하위영역에 포함된 19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은 리더쉽, 사회성, 방해성으로, 리더쉽 문항에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은지,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지 등을 묻는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회성은 친구들을 좋아하는지 친구에게 양보하는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방해성은 무슨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신경질 부리며 짜증낼 때가 많거나, 사소한 일에도 잘 싸우거나 등을 묻는 5개 문항으로 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alpha$ )를 살펴보면, 리더쉽은 .81, 사회성은 .79, 그리고 방해성은 .83으로 나타났다.

##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는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 영역(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가치감(이하 자아가치감), 우정, 직업능력, 낭만적 매력,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5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신뢰도가 높은 5개 하위영역을 선별하여 총 2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선별된 요인은 외모(4문항), 운동(4문항), 학업(7문항), 행동(4문항), 전반적 자기가치감(9문항) 이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모요인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지, 몸매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으며, 운동요인은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경기를 잘 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학업요인은 학업수행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며, 자신이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수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요인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 자기가치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 1점부터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개념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  $\alpha$ )는 외모 .91, 운동 .84, 학업 .79, 행동 .71, 전반적 자기가치감 .86 이었다.

## 4) 학교생활 적응척도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노숙영(1997)의 학교생활 적응척도와 Doh와 Falbo(1999)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1) 역코딩 하였음.

서는 요인분석 후 4개의 하위영역에 포함된 30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은 교우관계(8문항), 수업태도(9문항), 학교규칙(7문항), 교사관계(6문항)로, 교우관계 요인에는 학교에서 한 반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지,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은지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수업태도 요인에는 각 과목의 숙제가 너무 많고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운지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규칙 요인에는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키는지,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관계 요인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교사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교우관계는 .73, 수업태도는 .78, 학교규칙은 .72, 그리고 교사관계는 .73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의 어휘가 한국어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에게 검토하게 한 후 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04년 12월 중 연변에서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Vers. 11과 Amos 4.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변인 간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척도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을 요인분석 하였는데, 애착은 총 3개 요인으로, 또래관계는 총 3개 요인으로, 자아개념은 총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 후에 각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연변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변 조선족 중학생의 경우,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리더쉽과 사회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신뢰감은 수업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리더쉽과 사회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소원감은 수업태도,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쉽, 사회성, 방해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의 하위요인들은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변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Pearson r)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b>애착</b>															
1.의사소통	1														
2.신뢰감	.64**	1													
3.소원감	.51**	.36**	1												
<b>자아개념</b>															
4.외모	.31**	.16*	.37**	1											
5.운동	.28**	.25**	.22**	.23**	1										
6.학업	.21**	.20*	.24**	.07	.19*	1									
7.행동	.35**	.34**	.42**	.25**	.33**	.32**	1								
8.자기가치	.26**	.15*	.34**	.50**	.28**	.40**	.40**	1							
<b>또래관계</b>															
9.리더쉽	.41**	.21**	.29**	.17*	.35**	.33**	.29**	.37**	1						
10.사회성	.40**	.27**	.25**	.13	.15	.22**	.30**	.34**	.51**	1					
11.방해성	.06	.09	.27**	.04	.12	-.01	.25**	-.01	.08	.22**	1				
<b>학교적응</b>															
12.수업태도	.45**	.33**	.35**	.23**	.31**	.27**	.44**	.33**	.52**	.39**	.20*	1			
13.친구관계	.39**	.26**	.33**	.09	.24**	.22**	.35**	.31**	.67**	.61**	.15	.45**	1		
14.학교규칙	.20*	.07	.08	.01	.11	.18*	.21**	.23**	.39**	.46**	.21**	.36**	.32**	1	
15.교사관계	.32**	.19*	.23**	.06	.20**	.31**	.28**	.23**	.46**	.33**	.06	.62**	.36**	.34**	1

\* $p < .05$  \*\* $p < .01$

한국 중학생의 경우,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고,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리더쉽과 사회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개념에서 외모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다. 신뢰감은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으며, 또래관계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소원감은 수업태도, 친구관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고,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학업, 행동, 자기가치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중학생의 경우도 애착의 하위요인들은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 1) 중국 조선족과 한국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의 분석을 위해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4>과 <표 5>에 따르면,  $p$ 값이 .00이므로 완벽한 적합도에 대한 가설검증(test of perfect fit)에 대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chi^2$  검증에서 영가설이 기각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론모형이 전집자료에 완벽하게 부합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chi^2$  검증에서 영가설은 기각되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어도 이론모형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hi^2$  검증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



〈표 3〉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Pearson r)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b>애착</b>															
1.의사소통	1														
2.신뢰감	.79**	1													
3.소원감	.53**	.58**	1												
<b>자아개념</b>															
4.외모	.13	.22**	.13	1											
5.운동	.18*	.21**	.14	.07	1										
6.학업	.27**	.29**	.16*	.12	.29**	1									
7.행동	.45**	.43**	.50**	.24**	.29**	.28**	1								
8.자기가치	.35**	.44**	.35**	.48**	.28**	.42**	.39**	1							
<b>또래관계</b>															
9.리더쉽	.39**	.39**	.22**	.16*	.45**	.58**	.48**	.41**	1						
10.사회성	.21**	.24**	.21**	-.06	.13	.27**	.14	.19**	.37**	1					
11.방해성	.14	.24**	.29**	.21**	.17*	.04	.44**	.15**	.13	.07	1				
<b>학교적응</b>															
12.수업태도	.44**	.41**	.27**	.22**	.23**	.38**	.48**	.27**	.46**	.12**	.14*	1			
13.친구관계	.39**	.48**	.40**	.13	.28**	.40**	.43**	.41**	.64**	.51**	.10	.29**	1		
14.학교규칙	.22**	.20**	.13	.14	.25**	.13	.33**	.15*	.21**	.02	.26**	.47**	.08	1	
15.교사관계	.38**	.38**	.14	.17*	.21**	.35**	.24**	.36**	.41**	.20**	.13	.41**	.36**	.42**	1

\* $p < .05$  \*\* $p < .01$

는 이유는  $\chi^2$  값이 모형 적합도 뿐만 아니라 표본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TLI와 CFI, 그리고 RMSEA를 선택하였다.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sup>3)</sup>를 살펴본 결과 그림 3 모형(조선족)에서 TLI는 .98, CFI는 .99, 그리고 RMSEA는 .09로, 그림 4모형(한국)에서 TLI는 .97, CFI는 .98, 그리고 RMSEA는 .09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 그림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111.10	41	0.00	0.98	0.99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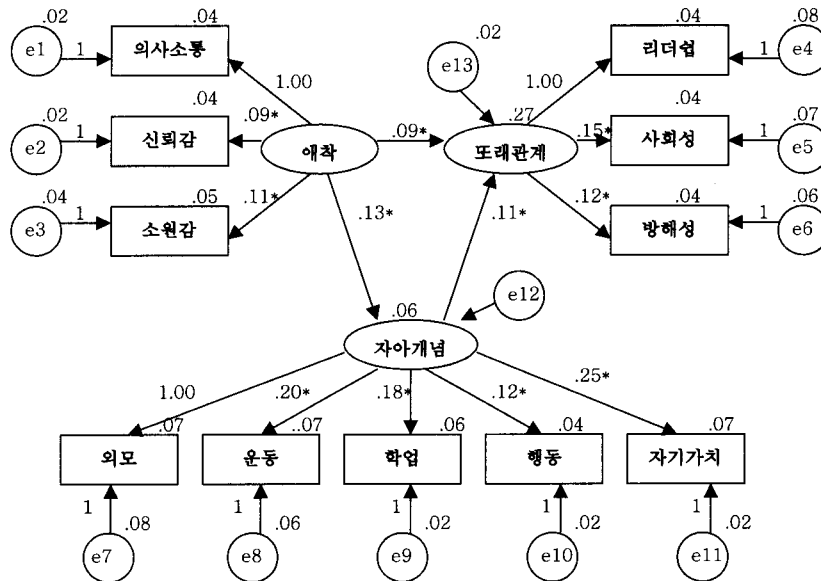
〈표 5〉 그림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161.39	41	0.00	0.97	0.98	0.09

2) 홍세희(2000) 참고.

3) 적합도 지수의 자세한 설명은, 이사라, 박성연(2001) 또는 홍세희(2000)을 참고. CFI와 TLI가 0.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가 .05 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 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

한편, <그림 3>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조선족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개념 변인이 또래관계에 대해 총 변량의 27%를 설명하고 있다.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경로계수를 보면, 애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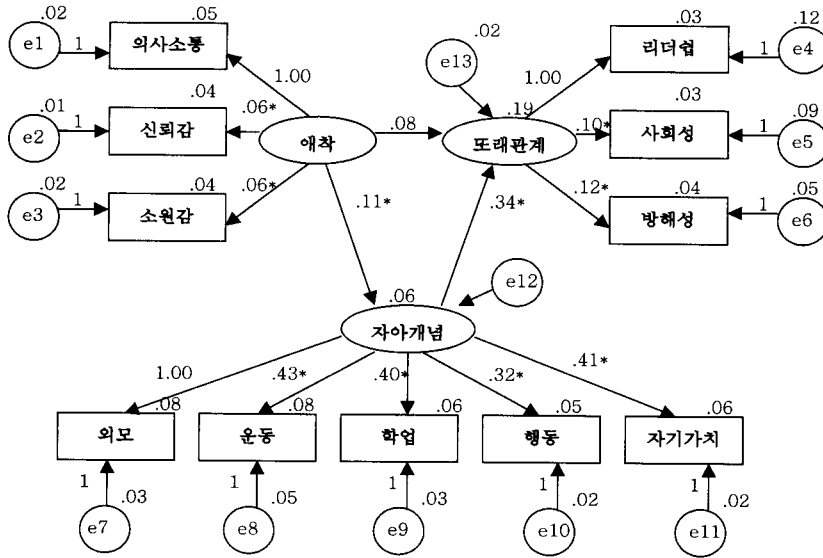


〈그림 3〉 조선족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0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3으로 그 값이 유의미하였으며,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도 .1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 조선족 중학생의 경우,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자아개념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애착은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 중학생의 분석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신뢰감은 .09, 소원감은 .11로 나타났는데, 애착을 구성하는 요인 중 소원감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사회성은 .15, 방해성은 .12로, 또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사회성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개념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운동 .20, 학업

.18, 행동 .12, 자기가치는 .25로, 자아개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가치감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분석결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개념 변인이 또래관계에 대해 총 변량의 1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의 경로계수를 보면, 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08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애착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1로 그 값이 유의미하였으며, 자아개념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도 .3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 중학생의 경우,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자아개념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애착은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중학생의 분석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신뢰감 .06, 소원감은 .06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래관계



〈그림 4〉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를 구성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사회성 .10, 방해성은 .12로, 또래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방해성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운동 .43, 학업 .40, 행동 .32, 자기가치는 .41로, 자아개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운동으로 나타났다.

〈표 6〉 그림 5의 적합도 지수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99.71	51	0.00	0.99	0.99	0.08

〈표 7〉 그림 6의 적합도 지수

지수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166.83	51	0.00	0.98	0.99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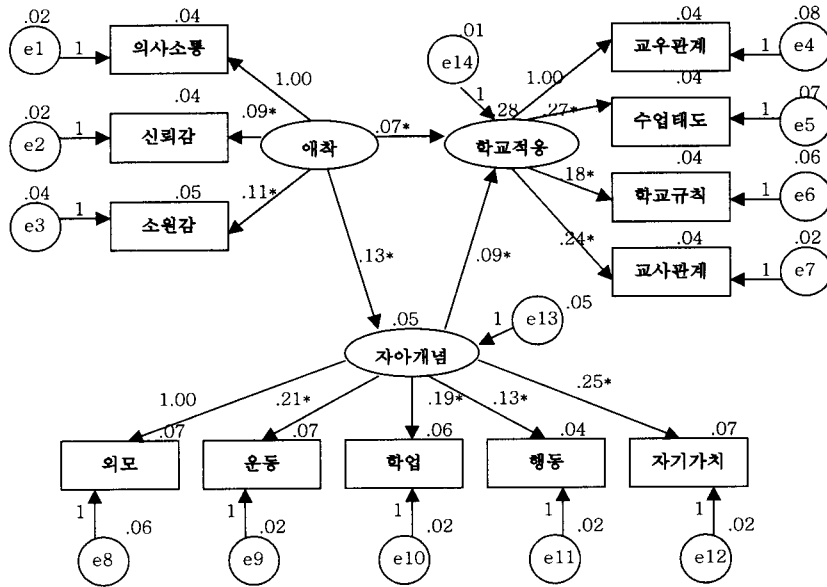
## 2)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

념,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의 분석을 위해 <그림 5>와 같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를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그림 5의 경우, TLI는 .99, CFI는 .99, 그리고 RMSEA는 .08로 나타났으며, 그림 6의 경우, TLI는 .98, CFI는 .99, 그리고 RMSEA는 .09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림 5>에 따르면, 조선족 중학생의 경

우, 애착과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총 변량의 28%를 설명하고 있다. 애착,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경로계수를 보면,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0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3으로 그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도 .0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애착은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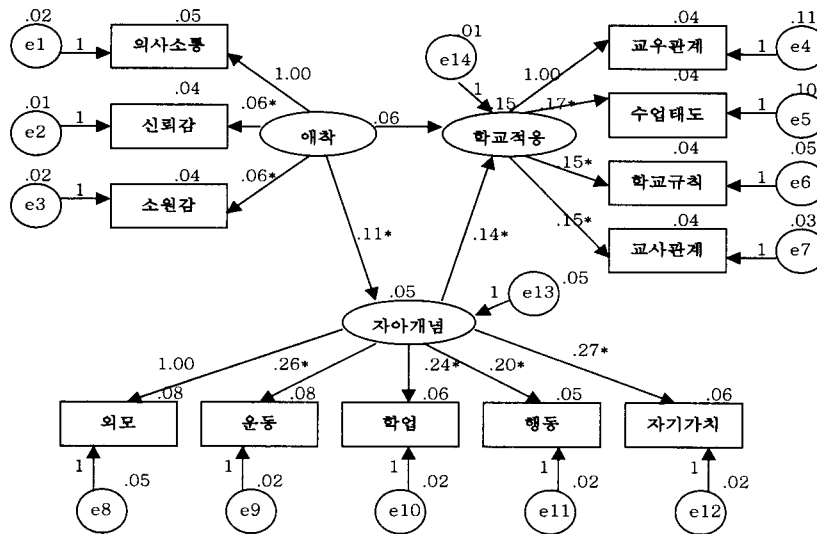


<그림 5> 조선족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분석 결과

과를 볼 수 있다. 조선족 중학생의 학교적응 모형분석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신뢰감 .09, 소원감 .11로 나타났는데, 애착을 구성하는 요인 중 소원감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네가지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수업태도 .27, 학교규칙 .18, 교사관계 .24로,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수업태도가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운동 .21, 학업 .19, 행동 .13, 자기가치 .25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는데, 자아개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가치감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6>에 따르면, 한국 중학생의 경우, 애착과 자아개념에 대한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총 변량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애착,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경로계수를 보면,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는 .06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1로 그 값이 유의하였고, 자아개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 중학생의 경우,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으나,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모형분석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 세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신뢰감 .06, 소원감 .06을 나타내었고,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네가지 하위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수업태도 .17, 학교규칙 .15, 교사관계 .15로,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중 수업태도가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의 하위요인 중 운동 .26, 학업 .24, 행동 .20, 자기가치 .27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는데, 자아개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가치감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학교적응의 분석 결과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자치구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한국의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애착과 자아개념,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애착이 청소년기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은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애착,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들은 대부분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과 자아개념(Roberts,

Gotlib, & Kassel, 1996), 애착과 또래관계(Bowlby, 1980), 애착과 학교적응(Kerns, Klepac, & Cole, 1996; Larose & Boivin, 1998; Rice, FitGerald, Whaley, & Gibbs, 1995), 자아개념과 또래관계(Blain, Thompson, & Whiffen, 1993; Brack, Gay, & Matheny, 1993),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Badura, 1997; Harter, 1996; Lapsley 등, 1990; Mattanah et al., 2004; Valentine, 2002)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청소년은 학교에서 새롭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고(Sax, Astin, Korn, & Mahoney, 1999; Vivona, 2000),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

제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Hay, Ashman, van Kraayenoord, & Stewart, 1999)에 근거하여 애착과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개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 결과,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는 자아개념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고 한국 청소년의 경우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중국 조선족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지만,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 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또래관계를 자아개념이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개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또래관계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경우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이 애착과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의 애착,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의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중국 조선족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아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매개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한국 중학생의 경우는, 애착의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자아개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

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이 학교적응에 직접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한국 청소년은 애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개념에 따라 학교적응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는 중국 조선족 초등학생을 분석한 결과(이사라·박혜원, 2005)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부분 자아개념 연구들은 자아개념이 사춘기 이후에 안정된다고 밝힌다(송인섭, 1998). 즉, 자아개념은 대개 영·유아기 시기에 발현되면서 증가하다가 8세에서 10세 사이에는 감소되고, 청년기중기 이후에 안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Morse, 1964). 따라서 자아개념의 미완성시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중학생 시기에 자아개념의(완전 또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자아개념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화되어 간다는 연구(Shavelson & Marsh, 1986)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조선족의 경우 애착이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이들 집단에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한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애착의 의미와 차이는 없는지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중국 연변 자치주 거주 조선족은 한국적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지만 근대화 과정은 한국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의 사유제를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는 전체적인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집단주의 원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이귀옥 외, 2003). 중국은 이 원리를 강조하여 반드시 균중적인 가치지향 그리고 집단주의 정신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도록 사회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이든 사회주의 사회이든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은 가족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체적인 평등과 집단주의 이념을 추구해왔어도 오랜 세월이 걸친 가족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 윤리는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전통적인 덕목인 효도와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을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부계가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역사의 흐름과, 세대교체, 문화의 발전 등으로 다소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된 한국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부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채로 보존 계승되어 오고 있다. 급격한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가치관 및 아동양육방법과 연구가 서구화된 한국 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타문화권과의 교류가 적었던 이유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부모-자녀관계를 보이고 있다(이귀옥 외, 2003).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연변 자치구의 환경에서 자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착은 한국의 현재 부모-자녀관계나 애착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연변의 경제적 상황과 발전 환경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1960년대-70년대 사회와 유사한 모습이 많은데(국립민속박물관, 1998), 이 시기에는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상호작용의 질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기만해도 아이가 성장하는데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애착이나 상호작

용은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박영신·김의철, 2004). 중국 조선족 중학생의 경우 애착이 또래와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한국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애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조선족 중학생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문항에 대한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이 기 형성된 문화-역사-사회적 제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활동을 통해 발생되고 구성된다는 입장인 환경-활동중심적 발달관에 근거해서 논해질 수 있을 것이다(최상진·김양하·황인숙, 2004).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인 중국 조선족과 한국 중학생에게 다르게 나타난 애착의 영향은 문화와 생활양식에 따라 애착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정체성 발달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중, Quintana와 Lapsley(1987)는 대학생 대상으로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기 부모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아정체성 발달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들의 적응적인 자아정체성 탐색과 부모-자녀 간 애착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성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취약한 영아기에 비해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의 적응은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 관계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 않다고 논의하였다. 한국 중학생의 경우 애착이 영향이 자아개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또래관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예

착이 한국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나 학교적응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논의처럼 애착문제가 영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Lapsley 등(1990)은 애착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살펴보았는데, 애착은 개인적, 사회적 자아정체감의 일부 측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에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적, 사회적 자아정체성 발달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대학 1학년생들에게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학문적인 적응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학년 이상의 대학생들은 부모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의 직·간접 효과를 다 보이고 있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간접효과의 경로가 직접효과보다 더 크다는 점은 Lapsley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양 조선족 대학생들과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2005년 3월 27일 중국 심양), 조선족 아이들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별로 문제를 못 느끼며 잘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였다. 한족학생들에게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리게 되고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은 한족에게 먼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선족 고등학생 중 약 25%가 외국에 나가 돈을 벌고 대학생들 중 약 30%는 졸업하기 전에 외국에 나가 돈을 번다고 하였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신들이 주류로 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현실에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이(박혜원·박민정, 2005; 박혜원·이사라, 2005; 이사라·박혜원, 2005) 청소년기 후기 및 성인기에서는 어떤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되는 중국 조선족 대상 연구는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를 확장하고 종단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발달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분석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조선족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국립민속박물관(1998). *중국 후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노숙영(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 교육과학사.
- 박혜원·박민정(2005).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 박혜원·이사라(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적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81-194.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 이경숙 · 서수정 · 신의진(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11(1), 51-59.
- 이경숙 · 엄혜련 · 정영운(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심리학회지*, 16(3), 511-532.
- 이귀옥 · 전효정 · 박혜원 · 원영미 · 김영주 · 박태수 · 나은영(2003). 중국 연변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환경. 서림출판사.
- 이사라 ·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사라 · 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 이시은 · 이재창(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심리학회지*, 16(2), 207-226.
- 정현희 ·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5-95.
- 최상진 · 김양하 · 황인숙(2004). 한국문화에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한국심리학회지*, 10(특집호), 11-28.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4.
- Allen, J. P., Hauser, S. T., & Borman-Spurrell, E. (1996). Attachment insecurity and related severe adolescent psychopathology : An eleven 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54-263.
- Allen, J. P., Moore, C. M., & Kuperminc, G. P., & Bell, K. L.(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ndura, A.(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 Becker-stroll, F., & Fremmer-Bombik, E.(1997). Adolescent mother interaction and attachment : A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 Blain, M., Thompson, J., & Whiffen, V.(1993). Attachment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e adolescence : The interaction between working models of self and others.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8, 226-241.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New York : Basic Books.
- Brack, G., Gay, M., & Matheny, K.(1993).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coping resources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s Development*, 34, 212-215.
- Cooper, M. L., &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87.
- Doh, H. S.,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3(1), 149-162.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 Harter, S.(1988). *Manual for the self-concept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Co : University of Denver Press.
- Harter, S.(1996).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pp. 1-37). New York : Wiley.
- Hay, I., Ashman, A. F., van Kraayenoord, C. E., & Stewart, A.(1999). The identification of self-verification in the formation of children's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225-229.
- Kerns, K. A., Klepac, L., & Cole, A. K.(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roger, J.(1985).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14, 133-147.
- Kroger, J., & Haslett, S. J.(1988).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status in late adolescence :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59-79.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Larose, S., & Boivin, M.(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high school-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7.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cCormick, C. B., & Kennedy, J.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3(1), 1-18.
- Morse, W. C.(1964). Self-concept in a school setting. *Childhood Education*(pp. 195-198).
- Papini, D. R., & Roggman, L. A.(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 Quintana, S. M., & Lapsley, D. K.(1987). Adolescent autonomy and ego identity :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393-410.
- Rice, K. G., FitzGerald, D. P., Whaley, T. J., & Gibbs, C. L.(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73, 463-474.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310-320.
- Sax, L., Astin, A., Korn, W., & Mahoney, K.(1999). *The American Freshman : National norms for '1999*. Los Angeles :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California.
- Shavelson, R. J., & Marsh, H. W.(1986). On the structure

of self-concept. In R. Schwarzwe(Ed), *Anxiety and cognition*, 305-330.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Valentine, J. C.(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 A meta-analytic review.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2(9-B), 42-78.

Vivona, J.(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ts : Qualit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 316-329.

Waters, E., & Cumming, E. M.(2000). A secure base from which to explore close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1, 164-172.

---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8월 23일 채택